

세계도시동향

Global Urban Trend

2020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아시아 및 유럽

인도네시아 발리州

일본 교토市, 도쿄都, 오사카市

중국 상하이市

네덜란드

로테르담市

독일

베를린市, 프랑크푸르트市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프랑스

파리市

세계도시동향 해외통신원

암스테르담	장한빛	시카고	김영준	뉴델리	박원빈
베를린	신희완		강기향		박효택
	유진경	하와이	임지연	자카르타	박재현
	홍남명	휴스턴	이경선	도쿄	박재호
프랑크푸르트	이은희	상파울루	김현아	오사카	권용수
하노이	이희재	스톡홀름	문선우	베이징	박성은
쿠알라룸푸르	홍성아		허윤희	상하이	문혜정
뉴욕	윤규근	바르셀로나	진광선	에드먼턴	장지훈
	이수진		박정수	토론토	고한나
	이정근	싱가포르	이은주		김용훈
로스앤젤레스	최윤경	런던	정기성	보르도	김준광
샌프란시스코	김민희	비엔나	안병선	파리	김나래
시애틀	강민규	로마	서동화	시드니	정용문
		피렌체	김예름		

2020년 세계 주요도시 시장 신년사(요약): 아시아 및 유럽

인도네시아	발리州	와얀 코스테르(Wayan Koster) 주지사	3
일본	교토市	가도카와 다이사쿠(門川大作) 시장	4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6
	오사카市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시장	8
중국	상하이市	잉웅(应勇) 시장	9
네덜란드	로테르담市	아메드 어부탈렘(Ahmed Aboutaleb) 시장	11
독일	베를린市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13
	프랑크푸르트市	페터 펠트만(Peter Feldmann) 시장	15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	17
프랑스	파리市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18

인도네시아 발리주

와얀 코스테르(Wayan Koster) 주지사

새로운 시대를 향한 발리 비전

- 2019년 우수한 거시경제 성과를 달성
 - 국가 전체 평균(5.04%)을 웃도는 5.67%의 경제성장률, 국가 전체 평균(3.1%) 이하의 물가상승률(2.74%), 전년 대비 0.22% 감소한 3.79%의 빈곤율 기록
 - 전년 대비 0.15% 증가한 1.52%의 실업률은 해결해야 할 과제
- 발리 비전 달성의 법적 근거가 되는 州 자치법규를 2019년에 다수 제정·시행
 - 지역조직의 구성에 관한 자치법규에 의거해 연구혁신국과 원주민진흥국 등 설립
 - 유기농업체계에 관한 자치법규를 통해 유기농 육성과 운영을 장려하고, 영세 소상공인과 협동조합을 지원하며, 발리산 농산물의 생산과 소비를 진흥
 - 원주민 전통마을 재정관리에 관한 주지사 행정령을 통해 원주민 마을의회를 설립해 현대식 수입·지출 관리체계를 장려하고 매년 약 2,500만 원을 정식 교부
- 발리의 신성한 자연과 영적 콘텐츠를 보존하는 보편적인 개발계획을 추진
 - 신, 사람, 자연과의 조화를 중요시하는 힌두교 철학 트리 히타 카라나(Tri Hita Karana)에 따라 자연, 예의범절 등을 중시하는 발리 문화를 종합적으로 구축
- 전통예술과 현대예술의 조화와 진흥을 도모
 - 무용, 회화, 조각, 건축, 민속공예품 등 지역적 가치를 담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40개 스튜디오를 시상
 - 발리 예술축제를 질적으로 향상시키고, 발리 문화상품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며, 중앙정부와 협력해 지적재산권 관리를 강화
- 플라스틱쓰레기 절감 노력
 - 매달 1회 사원, 숲, 강, 해변, 전통마을, 시장 등의 공공장소에 공무원과 주민이 모여서 플라스틱쓰레기를 함께 수거하는 ‘플라스틱쓰레기 청소’ 프로그램 실시
 - 발리의 언어와 문학 등으로 플라스틱쓰레기 절감에 관한 교육 강화

<https://eramadani.com/pidato-akhir-tahun-gubernur-koster-ungkap-berbagai-keberhasilan-pembangunan-bali/>

<https://bali.idntimes.com/news/bali/diantari-putri/resolusi-pemerintah-provinsi-bali/full>

박재현 통신원, jaehyeon.jay.park@gmail.com

일본 교토市

가도카와 다이사쿠(門川大作) 시장

2020년은 새로운 교토, 빛나는 교토의 미래를 위해 도전과 개혁을 시작하는 해

- 2020년은 현행 10년 기본계획 완료에 따른 차기 계획 책정 등으로 속도감 있는 개혁을 추진해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해
 - 교토市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목표로 하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선진도 전국 1위, 도시 종합력 2년 연속 1위 등 여러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새로운 과제를 제대로 검증하고 도전·개혁을 하는 것이 매우 중요
 - 시민 생활을 가장 중시하는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실현을 위해 혼잡, 매너, 숙박 시설 등의 과제를 해결하고, ‘관광 선진도시 교토’에서 ‘관광 과제 해결 선진도시 교토’로 발전
 - 교토의 아름다움을 보전하는 신경관정책을 추진하면서 지속가능한 활력 있는 도시를 조성
 - 어린이집 등 대기아동 6년 연속 제로를 넘어 저출산 추세에 제동을 걸고, 모두가 보람·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일하는 방식 개혁을 포함해 교토의 특성을 토대로 한 대책 강화
 - 100세 시대 안심, 건강 및 장수, 의료·간호·생활지원 충실, 사회참여 촉진 대책, 빈곤 및 빈부격차, 학대, 고립 등 도전해야 할 과제가 산적
 - 2020 도쿄 올림픽¹⁾, 2025 오사카·간사이 세계 박람회 등 교토의 문화와 매력·강점을 살려 경제 활성화, 시민생활의 풍요로움, 세계평화 등에 기여할 절호의 기회가 있는 만큼, 시민 모두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을만들기에 힘쓸 필요가 있음

도시 이념의 공유, 백 년 앞 교토를 내다보는 도시경영, 일하는 방식 개혁 등을 추진

- 도시 이념의 공유와 실천, 그리고 이를 위한 전달력 향상
 - “도시는 이상(理想)을 필요로 한다”는 교토市의 최고 도시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세계문화 자유도시 선언’의 첫 문장
 - 이 선언에서 내건 ‘뛰어난 문화를 창조하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문화도시 교토’라는 도시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 문화를 축으로 지속가능한 도시를 목표로 하는 SDGs의 이념과 모든 위기에 신속히 대응하는 회복력 있는 도시 이념을 융합

1) 2020 도쿄 올림픽은 2020년 7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1년으로 1년 연기

- 시민이 이와 같은 이념과 목표, 구체적인 정책을 이해하고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 현재는 市の 이념과 목표, 구체적인 정책이 시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 측면이 있는데, 이와 관련해 우선 市 직원이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시민들에게 친절하게 전달함으로써 시민의 참여와 행동을 넓혀나가는 것이 필요
- ‘백 년 앞 교토를 내다보는 공격적인 도시경영’, ‘활력 있는 교토’ 실현
 - 최근 5년간 고용자 수가 58만 명에서 63.7만 명으로 5.7만 명(10%) 증가하였고, 정규고용자 수도 전국 평균 4%를 크게 웃도는 13%(4.3만 명) 증가
 - 그 결과 납세의무자가 6년 연속 증가해 2019년 최고치를 경신
 - 그러나 지방교부세의 대폭 감소나 사회복지 관련 경비 증가 등으로 매우 어려운 재정상황이 계속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교토만의 강점을 살린 경제 활성화 정책, 시민생활의 풍요로움 실현과 담세력(擔稅力) 향상이 중요
 - 대학마을, 학생마을, 지혜산업마을, 문화예술마을 등 교토의 강점을 살리고 융합하여 새로이 ‘스타트업 도시’로 발전해야 함
- 사람을 중시하는 근무방식으로의 개혁 및 진정한 워라벨 추진
 - 인간답게, 활력 있고 창조적으로,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좋은 직장환경 만들기가 중요
 - 인간관계를 개선하고 일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리고 개인의 삶은 물론 교토 전체를 풍요롭게 하기 위해서는 눈앞의 과제부터 하나씩 해결하는 것이 필요
 - 市 직원에 대해서는 되도록 교토市에 거주하면서 교토 특유의 문화를 즐기고 주체적으로 교토의 마을만들기에 참가해주길 당부

<https://www.city.kyoto.lg.jp/gyozai/page/0000262336.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일본 도쿄都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지사

“2020년은 레이와(令和)¹⁾ 시대가 도래한 이후 처음 맞이하는 새해”

- 새로운 시대의 빛나는 도쿄 만들기
 - 2019년은 재해가 빈발했는데, 도청 직원과 주민들이 ‘세이프 시티 도쿄’의 주축이 되었음
 - 2020년에는 도쿄 올림픽²⁾이 열리는데, 도청 직원들과 주민들이 ‘ONE TEAM’이 되어 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을 향해 나아가야 함
- 이를 위해 2019년 말에 ‘미래 도쿄’ 전략비전 책정
 - 올림픽의 성공은 앞으로 도쿄와 일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도약대가 될 것이며, 그 첫걸음을 내딛기 위해 2019년 말에 ‘미래 도쿄’ 전략비전을 책정
 - 전략비전에서는 ‘세이프 시티(safe city)’, ‘다이버시티(diversity)’,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진화를 담음
 - 도쿄의 미래는 일본의 발전을 견인하는 ‘성장’과 장수사회에서 누구라도 안심하고 활약할 수 있는 ‘성숙’이 양립하는 사회

“현실은 꿈을 초월한다”

- ‘20세기 예언’의 실현
 - ‘미래 도쿄’ 전략비전에는 꿈이 넘치는 미래 도쿄의 모습을 대담하게 그리고 있음
 - 무리라고 생각할 정도의 내용도 있을지 모르나, 100여 년 전 사람들의 예언과 꿈이 오늘날 많이 실현되었음
 - 100여 년 전 사람들이 예측한 것이 많이 실현되었다고 하면 앞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실현해 갈 수 있으며, 이러한 기대와 희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대담한 발상과 지속적인 도전
 - 세계의 변화를 쉽게 예측할 수 없는 지금 “실현하지 못하는 것은 없다”는 대담한 발상으로 꿈을 그려야 하며, “현실은 꿈을 초월한다”를 실현하기 위해 속도감을 가지고 도전을 계속 시도해야 함

1) 2019년 5월 1일부터 시작되는 나루히토(德仁) 일왕 체제에서의 연호(年號). 일본어 표기는 令和

2) 2020 도쿄 올림픽은 2020년 7월 개최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021년으로 1년 연기

都 직원들의 효율적인 업무처리와 일하는 보람 향상

- 효율적·효과적인 업무처리
 - ‘미래 도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직원들의 능력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함
 - 워라밸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업무 추진방식을 수정
 - 휴가의 계획적인 사용, 초과근무 감소 등을 통한 효과적인 업무 추진
- 유연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 적극 활용, 일하는 보람 향상
 - 유연근무제와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해 아침 시간을 유용하게 이용할 것을 권장
 - 도청에서는 1월 14일부터 아침 시간을 활용해 일찍 퇴근하는 직장 만들기를 추진
 - 또한 올해는 보다 일하기 편하고 자신의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여 직원들이 일하는 보람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https://www.metro.tokyo.lg.jp/tosei/governor/governor/katsudo/2020/01/0106_newyeargreetings.html

박재호 통신원, jaehog@naver.com

일본 오사카市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시장

개혁과 도전을 기본자세로 전(前) 시장의 시정을 계승하면서 ‘풍요로운 오사카 실현’을 목표

- 오사카의 지속 성장, 시민 서비스 확충, 시민 생활 만족도 향상을 추진
 - 오사카의 성장 지속 추진
 - 세계 최고 수준의 성장형 IR(통합형 리조트 시설)을 유치함으로써 2025년 개최되는 오사카·간사이 세계 박람회의 성공을 지원하고 오사카의 성장 기폭제 역할을 기대
 - 스마트시티 전략을 추진하고 세계 선진도시로서 지위를 목표로 함
 - 재해 대응력 강화 추진
 - 대지진을 비롯한 대규모 재해에 대비해 재해구호물자 비축 충실
 - 모든 시립중학교 체육관에 공기조절기 설치, 방조제 정비
 - 육아·교육 환경 충실화 추진
 - ‘중대한 아동학대 제로’를 목표로 관계기관과 연계한 지원을 함과 동시에 새로운 아동상담센터 정비 등 학대 방지 체제를 강화
 - 교육 정책의 충실화를 위해 교육위원회 사무국을 세분화하는 한편, 해결 과제가 있는 학교에 대한 중점 지원 등을 시행
 - 주민복지 향상 추진
 - 특별요양노인홈에 대한 계획적인 정비나 치매 관련 정책 추진 등 고령자 지원을 비롯해 지원이 절실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 시정 운영
 - 시민 요구에 더욱 세심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near is better¹⁾를 철저히 시행하고, 구청장의 책임과 권한 아래 지역 실정에 맞는 특색 있는 정책을 추진
 - 또한 오사카市에 어울리는 새로운 대도시 제도인 특별구제도 실현을 위한 대책을 추진

<https://www.city.osaka.lg.jp/seisakukikakushitsu/page/0000490307.html>

권용수 통신원, dkrrnlwjstjf@naver.com

1) near is better는 지방분권의 개념으로 주민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치를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의미

중국 상하이市

잉웅(应勇) 시장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

- 2019년에는 개혁개방의 중요한 돌파구를 마련
 -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린강신평지구(临港新片区)가 정식 출범
 - 상하이증권거래소에서 커창판(科创板)¹⁾을 개설하고 주식발행 등록제를 시범 실시
 - 장강 삼각주 일체화 발전 국가전략을 전면 실시
 - 제2회 중국 국제수입박람회²⁾를 성공적으로 개최
- 현재 새로운 성장동력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음
 - 금융, 정보, 과학기술 등 현대 서비스업이 강세를 보임
 - 집적회로, 인공지능, 바이오 의약 등 신흥 산업의 성장이 가속화
 - 상하이의 5개 센터³⁾와 4대 브랜드⁴⁾의 영향력이 확대
- 비즈니스 환경이 개선되고 있음
 - 많은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제공
 - 정부부문에서는 이왕통반(一网通办)⁵⁾, 도시부문에서는 이왕통관(一网统管)을 운영하여 많은 시민들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함
- 민생사업을 적극 추진해왔음
 - 많은 고령자들에게 간편한 식사를 제공하고 위탁부양, 간호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함
 - 많은 어린이들이 보육원, 여름방학 돌봄교실, 방과 후 돌봄교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구시가지지를 개발하고 거주여건을 개선함

2020년에는 보다 높은 수준의 전면적인 샤오강 사회⁶⁾를 건설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

- 글로벌 영향력이 있는 과학기술혁신센터의 기본 틀을 형성하고 국제경제, 금융, 무역,

1) 과학기술혁신판, 영문명은 Sci-Tech innovation board

2) 중국 상무부와 상하이市 정부가 주최하는 중국 최대 무역박람회로서 2018년 처음으로 개최

3) 5개 센터(五个中心)는 국제경제센터, 금융센터, 무역센터, 해운센터, 과학기술혁신센터를 가리킴

4) 4대 브랜드(四大品牌)는 상하이가 서비스·제조업·쇼핑·문화를 육성하는 4대 브랜드 전략

5) 온라인 원스톱 정부처리 서비스를 말함

6) 샤오강 사회(小康社会)는 중국이 2021년까지 목표로 하는 모든 국민이 의식주 걱정 없이 편안하고 풍족한 사회를 말함

해운 센터의 건설을 가속화하며 4대 브랜드의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경제 성장을 안정적으로 꾀하고 높은 수준의 경제발전을 추진

- 도시관리 수준을 더욱 현대화하고 양로원, 유치원, 구시가지 재개발, 농촌진흥, 쓰레기 분류, 교통, 환경오염 예방 및 저감 등 민생의 관심사를 중점 추진

<https://baijiahao.baidu.com/s?id=1654478293649177643&wfr=spider&for=pc>

문 혜 정 통신원, moon_hj@naver.com

네덜란드 로테르담市

아메드 어부탈렙(Ahmed Aboutaleb)¹⁾ 시장

“훌륭한 계획은 과거로부터 나온다”

- 꿈과 포부를 담은 2020년의 청사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
 - 로테르담의 주요 상업가로 중 하나인 Hoogstraat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Hooge Zeedijk van Schieland 제방 위에 놓여 있음
 - 750년 전 Rotte 지역에 지어진 이 댐(dam)이 로테르담(Rotterdam)²⁾의 시작
 - 이 댐을 건설한 이후 홍수 등으로 인한 경작물 피해를 더이상 겪지 않게 됨
 - 무역도 함께 융성하면서 주거지가 마을로, 어업 항구로, 다시 항구도시로 성장하여 지금의 로테르담에 이름
 - “주민들에게 댐은 미래였고, 지금 그 미래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 로테르담에 더이상 농경지는 없지만³⁾ 여전히 많은 것을 추수하고 있음
 - 로테르담은 창조하고 창작하며 생산하는 도시이자 꿈을 꾸고 행동하며 투자하는 도시이자 축하하고 기념하며 재현하는 도시
 - 지금 우리의 아이들이나 손자들, 혹은 그 이후 세대도 로테르담을 지금과 같이 누리고 가꿔나갈 수 있기를 바램

“기후변화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제방을 함께 건설해 나가야”

- 후손들을 위해 우리는 “에너지 전환”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댐을 지어야 함
 - 750년 전 물을 막아주는 제방의 건설로 로테르담이 있을 수 있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에게 기후변화로부터 우리와 미래 세대를 지켜줄 제방이 필요
 - 에너지 전환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논의는 10년 전부터 이미 광범위하게 있었음. 실행에 필요한 막대한 비용 때문에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었으나 시간이 흘러 현재 실현되어가고 있음
 - 어딜 가든 손쉽게 볼 수 있는 지붕 위에 설치된 태양광전지

1) 모로코 출신 이민자로 2009년부터 로테르담 시장직을 맡고 있음. 이민자 출신이자 이슬람 신자로는 처음으로 네덜란드 주요 대도시(암스테르담, 로테르담, 헤이그, 우트레흐 등)의 시장을 맡음

2) 로테르담(Rotterdam)은 Rotte+Dam의 합성어로 네덜란드의 많은 도시 이름이 이러한 방식으로 지어짐.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Amsterdam) 역시 Amstel+Dam의 합성어임

3) 신년연설 중 농경지의 예외로 꼽은 “Floating Farm”은 세계 최초로 지어진 물 위에 떠 있는 농장으로 동물복지와 유제품 생산, 순환경제에 주력하고 있음(<https://floatingfarm.nl/>)

- 항구 지역에 설치된 풍력발전기는 이미 12메가와트의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음
- 가까운 미래에 순수소전지도 생산할 예정
- 로테르담市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이 댐을 시민, 기업, 교육기관 등과 함께 만들어 나갈 것임
 -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미래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 학교는 미래의 직업군에 대비해 학생들을 교육
 - 기업가들은 지속적으로 혁신과 실험을 해나감
 - 주민들은 각자의 집에서, 길거리에서,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보다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소비가 가능한지를 찾아냄
- 이 도시가 시작되었던 장소를 우리의 일상에 되새기며 함께 웃고 울고 축하하는 한 해가 될 것임
 - 올해 가장 중요한 행사는 5월 5일 열리는 해방 75주년 기념식
 - 2020년은 네덜란드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 치하에서 해방을 맞이한 지 75주년이 되는 해. 네덜란드는 1945년 5월 5일 해방을 맞이⁴⁾
 - 우리가 존재하기 위해 건강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자유라는 자양분. 자유는 우리가 꿈꾸는 것을 비로소 실행할 수 있게 해줌
 - 로테르담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는 도시로, 유로비전 가요제⁵⁾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음
 - 로테르담은 국제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와 도전을 멈추지 않는 도시로,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의 ‘고향’⁶⁾

<https://www.rotterdam.nl/bestuur-organisatie/burgemeester-aboutaleb/Nieuwjaarsbijeenkomst-Burg-erzaal-6-januari-2020.pdf>

장 한 빛 통신원, hanbitive@gmail.com

4) 로테르담은 1940년 5월 14일 나치 독일군의 폭격으로 도심이 거의 초토화되는 등 네덜란드 내에서 제2차 세계대전으로 피해가 가장 컸던 도시

5) 올해 5월 16일 로테르담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제65회 대회는 코로나19 사태로 취소됨. 유로비전 가요제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함. 유럽 최대 음악 경연 축제인 유로비전 가요제는 제2차 세계대전 후 폐허가 된 유럽인의 마음을 달래고자 1956년에 시작. 매년 5월에 열리며, 직전 대회 우승자 출신 국가에서 개최됨. 2019년에 열린 제64회 가요제에서 네덜란드 출신의 Duncan Laurence가 우승한 바 있음

6) 170여 개국에서 온 이민자들이 로테르담 인구의 53.9%를 차지(2018년 기준)

독일 베를린市

미하엘 뮐러(Michael Müller) 시장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향해 가고 있는 베를린

- “우리는 새해와 함께 새로운 10년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 2019년 베를린은 통일을 위한 평화로운 혁명 및 베를린 장벽 붕괴 30주년을 맞이하였음
 - 동독과 서독 사이의 분단이 종결된 이후 평화와 자유를 누리고 있음
- 베를린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갈망하는 도시이자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도시
 - 경제성장을 및 고용률을 평균 이상으로 달성하였으며, 지멘스, BMW 등 독일의 전통적인 회사는 물론 Tesla, NTT 등 신진 기업이 베를린에 수억 유로를 투자
 - 새로운 아이디어와 용기, 흥미로운 관점 등이 합쳐져 베를린은 확신을 가지고 미래로 향하고 있음
- 베를린은 시민들의 노동과 혁신 정신, 우수한 과학 및 연구환경에 의해 발전해옴
 - 우수한 과학 및 연구환경으로 향후 10년 비전을 구현해나갈 수 있고, 유럽 내 과학 및 의학 대도시로 자리 잡고자 함
 - 베를린 내의 우수한 대학과 전 세계에서 모여든 인재들, 베를린으로 유입되는 많은 투자 등을 통해 기회를 만들고자 함

사회적 약자 배려, 주거 문제 해결 등을 집중 추진

- “모두가 베를린의 성공으로부터 혜택을 받아야 합니다” ... 사회적 약자를 위한 정책
 - 2020년에는 주당 최저임금을 12.5유로로 인상
 - ‘연대적 기본소득’(Solidarisches Grundeinkommen)이라는 시범사업을 통해 기존 실업수당 프로그램인 Hartz IV 대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학교 무료 급식과 저렴한 학생 교통티켓을 통해 가족 부양 비용을 경감
 - 매일 통근하는 직장인과 견습생을 위한 저렴한 승차권도 신설
- 도시의 공공인프라 영역에 수십억 유로를 투자
 - 대중교통 등에 투자하여 사람들이 버스와 기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자가용 이용을 줄이도록 하고, 이를 통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고자 함
- “저렴한 집은 안전한 삶의 일부. 주택은 상품이 아닙니다”

- 베를린市가 가장 노력하고 있는 분야는 주거 문제 해결
- “여러분들은 임대료 인상으로부터 5년간 숨돌릴 틈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주택 건설 등을 통해 주거공간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되, 2019년부터 시행된 임대료 상한법을 통해 임대료 인상을 억제
- 난개발을 염려하는 시민들에게 어떤 건물이 사라져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주거지를 조성해야 할지에 대해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

모든 형태의 차별에 반대하고 사회의 단결력을 강화하는 도시 지향

- 사회적 단결력을 강화하고, 배제와 분열을 시도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음
 - 현재 베를린 시민들은 자유, 개인적인 관점, 동등한 참여를 보장하는 세계적인 다양한 도시사회의 성공에 힘입은 바 큼
 - 따라서 반유대주의, 인종주의, 동성애혐오(호모포비아) 등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해 계속 반대할 것임
- “우리는 많은 기회를 가지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베를린을 유럽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이러한 기회를 활용합시다”

<https://www.berlin.de/rbmskzl/aktuelles/pressemitteilungen/2019/pressemitteilung.879278.php>

홍 남 명 통신원, dangmu7722@gmail.com

독일 프랑크푸르트市

페터 펠트만(Peter Feldmann) 시장

“시민참여로 더욱 강력한 민주주의를 구축합시다”

- 독일 민주주의가 태동한 도시 프랑크푸르트
 - 역사를 돌아보면 프랑크푸르트는 스스로 거듭나는 도시였음
 - 새로운 사상을 허용하고 사람들을 스스로없이 받아들이고 적응하게 하였음
 - 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하는 바탕 위에서 독일 최초의 민주주의가 태동했음
 - 민주주의 태동의 기념비가 되는 바울교회(Paulskirche) 보수공사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 강력 추진할 계획
- 민주주의 전통 계승
 - 바울교회 보수공사는 단순히 건물 수리를 뜻하지 않음. 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는 의미임
 - 극우파의 반문명적 이데올로기가 의회와 대중에 뿌리내리려는 이 시대에 우리는 민주주의를 강화해야 함
 - 바울교회 옆에 들어설 민주주의센터는 민주주의에 대한 선명한 고백, 즉 민주주의 “예스”, 극우파와 인간혐오 “노”를 말하는 건물이 될 것임
- 프랑크푸르트는 독일 민주주의의 수도
 - 2019년에도 우리 도시를 민주주의의 수도로 만들어주고 도시를 실제로 변화 시키게 한 것은 시민들의 참여 덕분
 - 기후변화 관련 정책, 자전거도로 관련 투자 프로그램은 시민 참여로 가능
- 복지와 참여가 함께 숨쉬는 민주주의
 - 우리는 살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임
 - 무상 유치원, 어린이·청소년의 수영장 무료입장, 교통요금 인하, 임대료 인상 억제 등으로 살기 좋은 도시뿐만 아니라 ‘비싸지 않은’ 도시를 만들고 있음
 - 어린이·청소년의 무료입장 가능 시설을 동물원, 자연사박물관, 시립 박물관과 전시관뿐 아니라 사립 박물관과 전시관 등으로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
 - 또한 어린이·청소년 관련 도시정책 과정에 어린이와 청소년이 직접 참여하도록 할 계획. 이를 위해 청소년의회가 구성될 예정

○ 끊임없이 변화하는 도시 프랑크푸르트

- 더 나은 세상 만들기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 도시는 훌륭하게 변화하고 있음
- 프랑크푸르트를 더 낫게 만드는 과정에 시민들이 함께하면 반드시 해낼 수 있음

<https://www.frankfurt-live.com/neujahrsgru-szligwort-von-oberb-uumlrgermeister-peter-feldmann-118330.html>
<https://www.fr.de/frankfurt/gemeinsames-grusswort-nicht-gewuenscht-13374418.html>

이 은 희 통신원, eunhi999@gmail.com

스페인 바르셀로나市

아다 콜라우(Ada Colau) 시장

최근 카탈루냐주의 이상기후 현상 등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른 주요 정책을 발표

- 3월부터 주요 도시고속도로 중 하나인 아라고 거리(Carrer Aragó)를 한 달에 한 번 차량을 통제하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활용할 계획
 - 이 계획은 도시의 9개 주요 도로에 확대 적용할 예정
 - 아라고 거리의 차량 통제는 일요일 오전에 시행되며, 그 외의 거리에 대해서는 토요일 오후에 시행
 - 2월 첫째 주말에는 그란 데 그라시아 거리(Gran de Gràcia)와 비아 라이에타나 거리(Via Laietana)를 대상으로 시행하고, 3월 첫째 주말에는 크레우 코베르타 거리(Creu Coberta)에 적용
- 현재 바르셀로나 시내 도로 50%의 차량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데, 향후 2년에 걸쳐 도시 내 도로 75%에 대해 차량제한속도를 시속 30km로 할 계획
 - 차량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45%인 데 반해 차량제한속도 30km 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사망률은 5%에 불과해 도시 내 차량 속도를 줄임으로써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음
- 올해부터 시행 중인 ‘배기량에 따른 차량제한구역(Zona de Bajas Emisiones)’ 정책은 기후변화의 심각성에 따라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므로 정책 철회는 없을 것임
 - 하지만 정책 적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할 예정

<https://ajuntament.barcelona.cat/premsa/tag/lalcaldessa-respon/>

<https://beteve.cat/politica/ada-colau-alcaldessa-respon-gener-2020/>

<https://www.elperiodico.com/es/barcelona/20200123/barcelona-cortara-via-laietana-y-arago-al-trafico-el-primer-fin-de-semana-de-cada-mes-7818779>

진 광 선 통신원, sunnyice@daum.net

프랑스 파리市

안 이달고(Anne Hidalgo) 시장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파리”

- 특별한 파리
 - 신기술로 세계자본시장의 선두에 있는 창의도시
 - 2015년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 사건¹⁾ 등 각종 테러를 이겨낸 ‘흔들릴지언정 가라앉지 않는’ 용기의 도시
 - 거리의 여성들을 보호하는 도시
 - 건축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간직한 아름다운 도시이자 거리와 공원이 살아있는 도시
- 각 계층, 각 분야에서의 활약으로 발전하는 파리
 - 의료전문가의 노력으로 보건 분야 공공서비스가 강화
 - 자원봉사자의 활동으로 거리의 노숙자 문제 해결
 - 기업의 신기술 개발, 문화수도를 위한 예술가들의 활약상, 각 지역 협회의 적극적인 활동 등
-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
 - 지난 6년간 미래의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목표를 두고 파리를 변화시키려고 노력
 -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으로 자전거 타기가 활성화되고, 육류소비가 감소하며 유기농과 지역산물의 소비가 증가하는 등 사회적 변화가 가시화
 - 앞으로도 장기계획을 통한 꾸준한 변화가 필요

미래를 선도하는 파리시정 핵심 사업

- 도시환경
 - 새로 태어나는 아기 1명당 한 그루의 나무 심기로 6년간 17만 그루의 나무 심기 캠페인 전개
 - ‘도시 숲’ 조성계획과 함께 샹 드 마르스, 라 샹펠 샤프봉, 벡시 샤프랑동과 현재

1)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는 풍자와 만평으로 유명한 프랑스 주간지로, 2015년에 이슬람교 창시자 마호메트를 풍자하는 만평을 실었는데, 이 만평이 게재된 후 이슬람 극단주의자가 침입, 총기를 난사해 편집장 등 10여 명이 사망함. 이 주간지는 그동안 종교와 종교인을 풍자해왔으며, 특히 이슬람에 대해서는 폭력성을 부각해왔다는 평가를 받음

헬리콥터 정류장으로 이용되는 4구의 광장 등 4곳에 새로운 대공원 조성

- 6만 개의 자동차 주차장을 자전거 정류장으로 전환
- 모든 파리市 내 도로에 안전한 자전거도로 설치
 - 자전거도로 설치를 위해 에또알, 스탈린그라드, 콩코드 등의 광장 정비, 자전거 이용자들을 위해 상젤리제 거리 정비

○ 도시문화

- 시민들이 15분 안에 집에 돌아가 ‘배우고, 운동하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귀가시간(퇴근시간)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
- 새로운 공공서비스로 구청별로 공무원, 협회, 주민이 운영하는 ‘시민 키오스크(kiosque)’를 설치해 지역 정보를 교환하도록 하고 전시공간을 제공해 협회 활동을 활성화(현재는 12구에서만 운영 중)
 - 키오스크 설치를 위해 市 예산을 현재 5%에서 25%로 늘릴 예정

○ 도시연대

- 한부모 가정을 위해 가정에서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쿠폰(chèques coup de main)을 발행
- 요양보호사 혹은 환자 돌보미들이 쉴 수 있도록 요양소(maison de répit)를 개방
- 노숙자들에게 숙소를 제공하기 위해 근처 강당을 개방하고, 의료 구급대(Samu social)를 상주시킴. 또한 메닐몽땅(Ménilmontant)에 있는 옛 운동장 터였던 6,000㎡의 대지에 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응급 숙박시설을 건설
- 동성애 커뮤니티를 위해 마레 지역에 박물관 신설
- 종교시설물 개보수 공사 지원

○ 도시주거

- 6년간 200억 유로를 투자해 중산층에 시세보다 20% 낮은 임대료의 주거를 제공
- 토지와 건물을 분리하는 방법으로 ‘반값 아파트’를 제공
-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공사를 하고, 사회주거 건물을 대상으로 개보수 공사를 진행
- 사회주거 비율을 현재 전체 주거의 22%에서 25%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

<https://presse.paris.fr/wp-content/uploads/2020/01/Discours-des-v%C5%93ux-d%E2%80%99Anne-Hidalgo-aux-%C3%A9lus-de-Paris-et-de-la-M%C3%A9tropole.pdf>

<https://laminute.info/2020/02/07/les-principales-mesures-de-la-candidate-anne-hidalgo/>

세계도시동향 제478호

발행인 서왕진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5102
발행일 2020년 6월 8일

세계도시동향은 서울시 정책개발과 도시 관련연구에 참고할 가치가 있는
해외 주요도시의 정책사례와 동향을 소개하는 정기간행물입니다.
세계 각지에서 활동 중인 해외통신원으로부터
시의성 있는 사례와 정확한 현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세계도시동향에 관한 문의나 건의사항이 있으신 분은
서울연구원 도시정보실 출판팀 세계도시동향
담당(trees29@si.re.kr)에게 연락 바랍니다.

